

# 현지법인 세우고, 기업 인수... 증권사, 글로벌 영토 넓힌다

글로벌 시장서 韓 비중 1.6% 불과  
업계,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속도

미래에셋증권, 인도 '쉐어칸' 인수  
한국투자, 칼라일 그룹과 파트너십  
한화투자, 인니 칩타다나증권 인수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글로벌 시장 공략'을 새 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우며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다.

13일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2035조45억원, 코스닥 시가총액은 356조11억원이다. 원·달러 환율을 1470원으로 환산하면 두 지수의 시총 합은 약 1조6269억 달러(약 2391조5715억원)로, 이는 현재 글로벌 1위 시가총액을 보유한 애플(약 3조9029억 달러)의



여의도 증권가.

/손진영 기자 son@

약42%가량에 해당한다.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따지면 국내 자본시장의 규모는 1.6%로 규모로는 세계 14위 정도다.

국내 시장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 증권업계에서는 외연 확장의 일환으로 글로벌 시장공략이 활발해지고 있다.증권사들은 안정적인 글로벌 네트워

크 구축을 위해 외국계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우선 현지 진출을 통해 각국의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인도 10위 증권사에 해당하는 현지 증권사 '쉐어칸'을

인수해 '미래에셋쉐어칸'을 출범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중 하나인 칼라일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금융사 앵커리지캐피탈과 협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부족한 자본을 현지 주요 회사들과 협력해 보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지난해 11월 홍콩에서 열었던 민관합동 투자설명회(IR)에서 "국내 주식 시장과 회사채·국채 등을 모아도 규모가 전 세계의 1%대에 그치고 나머지 99%는 해외에 있다"며 "국내 개인 자산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데, 국내 상품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글로벌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진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한화투자증권은 지난해 6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칩타다나증권' 지분 8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9월말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인수 절

차를 마무리했으며, 올해 안으로 '칩타다나자산운용'의 인수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알려져 있다.

금융투자협회도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서학개미'의 증가세로 해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글로벌 증권사들을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있는 만큼, 역으로 한국 증권사들도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국내 투자자들 위해 현지 진출을 해놓는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의 필수 요건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설비투자 줄이고 합작법인 세워 '건축경영'

### 배터리 소재업계

에코프로, 중과 인니에 생산법인 설립  
포스코퓨처엠, 합작공장 투자 중단  
일부 자산 매각, 재무구조 개선 집중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올해도 크게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배터리 소재기업의 전망 또한 밝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과 안정적인 공급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한국자원정보서비스비 코미스에 따르면 리튬 가격은 지난 9일 기준 1kg당 72위안을 기록했다. 리튬 가격은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지난 2022년 4분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 2022년 11월 1kg당 581.5위안까지 상승했으나,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으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리튬 가격에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에 호의적이지 않은 만큼, 임기 동안 전기차 산업의 회복이 뚜렷하지 않다는 추측에서도.

이에 증권가에서도 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배터리 소재기업들이 4분기에 부진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다. 주요 원인으로서는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역래킹 효과'가 지목된다. 역래킹 효과는 비싼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의 실적



포스코퓨처엠 광양 사업장.

/포스코퓨처엠

추정치에 따르면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연간 매출 2조8692억원, 영업손실 389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작년 1분기와 2분기에 총 106억 원 규모의 흑자를 거둔 뒤 3분기 412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4분기에도 적자 폭 축소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연간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엘앤에프는 지난 1~3분기 누적 360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2023년 연간 영업손실 2201억원을 넘어섰다. 4분기는 942억원의 영업손실을 낼 것으로 진단된다.

포스코퓨처엠 또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포스코퓨처엠은 4분기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소재 기업들은 전기차 가격인하가 판매량 성장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제시되는 만큼, 원가 절감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한창이다. 영업이익률 확보를 위한 방향성은 결국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원가 절감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업계는 설비투자 규모 축소와 재무 채력 확보에도 집중할 전략이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에코프로는 광물 가격 안정화를 목표로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G

EM과 협력해 제련, 전구체, 양극재로 이어지는 통합 생산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에코프로비엠은 설비투자 규모를 1조5000억원에서 1조원 내외로 축소하고 양극재 공장 준공 일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퓨처엠은 합작공장 투자를 중단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며 재무 구조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북미시장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를 중장기 성장 요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 V 수요 회복 정도와 이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점진적 회복 가능 여부가 중장기 성장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리튬 사업 철수와 인력 축소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나 리튬 가격은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며 "4분기에도 배터리 소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내에서는 하방 경직성이 존재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시장의 잠재력은 여전히 크기에 현재 겪고 있는 캐즘이 지나면 시장이 성장하고 성숙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4분기 실적 SKT·LGU+ '웃고' KT '울고'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선방'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분기에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은 다소 엇갈릴 전망이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4조5668억원과 영업이익 3453억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8%, 16.2% 증가한 수준이다.

SKT는 올해도 AI를 중심으로 한 수익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2030년 총매출 30조원 중 AI 비중을 35%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AID C와 B2B, B2C 영역으로 세분화해 사업 전략을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220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그간 반영된 신규 통합전선망 구축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 비용 부담이 완화되어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올

4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통상 임금 변경 판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등 일회성 인건비가 대폭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률이 둔화됐다는 분석에서도.

반면 KT는 올 4분기 대규모 조직 재비로 인한 일회성 비용으로 영업이익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은 26조 3763억원에서 올해 26조 5719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영업이익은 1조 6498억원에서 9919억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11월 신규 자회사로의 진출과 함께 희망퇴직을 접수받았다. KT는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자회사 'KT 넷코어'와 'KTP&M'을 설립한 뒤 본사 인력 일부를 이동시켰다. 자회사로 진출 신청자수는 1723명, 희망퇴직은 2800명으로 총 4500명이 줄었다. 이들 퇴직자의 퇴직금은 2024년 실적에 전부 회계 처리돼 반영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3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대장암 체외진단·치과 치료제 등 임상진행

>> 1면 '초코파이 신화...서 계속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제약사 오노약품공업과 항암효과를 가진 후보물질 'LCB97' 기술이전 계약과 복수 타겟에 대한 물질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다.

리가캠바이오의 이같은 가시적 성과는 담 전무의 빠른 의사결정과 미래지향적 관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오리온은 2020년부터 중국산 동루강의약과 합자 회사 계약을 맺는

등 일찌감치 바이오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중국에선 대장암 체외진단, 국내에선 치과질환 치료제 등의 임상을 진행 중이다.

담서원 전무는 바이오 사업에서 성과를 내면서 오리온의 본업인 제과 사업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 바이오 사업이 초기 투자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단기적으로 경영 성과를 보여줄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룹의 사업다각화를 이루며 성장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성 기자 tree6834@